

지역 소식통

김제시민 문화장 박보현씨 선정

김제시가 지난 6일 제23회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7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문화장에 박보현(55, 덕안정



보고 교사)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등 4개 부문에서 문화장 2명, 산업장 1명, 공익장 3명, 체육장 2명을 추천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0일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장인 벽골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장 수상자 박보현씨는 덕안정보고교사로 풍물놀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각종 풍물·민속분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청소년 국악계승과 우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전통예술을 익히고 보존하여 지역 전통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주경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원주경찰서(서장 안상엽) 봉동파출소(소장 이장로)는 새학기를 맞아 원주고등학교에서 자율발발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 협력단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이 바깥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학교폭력 신고절차 홍보 등 새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원주=이종복 기자

대우에이피, 완주에 500만원 기탁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기부가 9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7일 완주군은 주식회사 대우에이피(대표이사 김상규)가 1111사회소통기금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봉동을 완주산단로에 위치한 대우에이피는 신뢰하는 마음(Trust), 창조하는 사고(Creation), 도전하는 행동(Challenge)을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력하고 있다.

1111사회소통기금은 박성일 완주군수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복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 제도로 100원, 1000원, 10,000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군민 모금운동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 벽골제 '농악으로 놀자'

21일~22일까지... 전통공연예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악 기획공연 열려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농악'이 농경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김제 벽골제에서 '농악으로 놀자! 농악기획공연'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대한민국 농악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우리 민족만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화·보편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자리 잡은 한민족의 공간인 김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농악'이 농경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김제 벽골제에서 '농악으로 놀자! 농악기획공연'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올해 열리는 '농악으로 놀자! 농악 기획공연'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호, 6대 농악단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제농악'과의 대동 한마당을 연출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7개 농악 시연을 통해 각 지역 고유의 색깔과 가락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9월 21일에는 벽골제 문화마당에서 김제농악의 '문굿'으로 열림마당을 시작하여 국가지정 6대 농악의 릴레이 공연과 7개 농악단의 합주를 통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며 공연 도중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기획공연은 농경문화 대표 프로그램으로의 정례화 차원에서

진행되며, 해외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 등과 함께하는 대동놀이의 장으로 특별 구성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농악은 본래 한민족의 전통농경문화 속에서 자생한 대표적 유산으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한민족 고유의 '신명'과 '흥'이 배어있는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며 김제시에서는 이번 기획공연을 통해 '농악'이 그간의 전 국민적 공감대를 넘어 해외 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 세계적 대동놀이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근식 김제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 '농악'을 통해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벽골제를 비롯한 농경문화가 살아 있는 김제에서 '농악의 색다른 맛'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덕면 행복학습센터, 높은 참여율 이어져

주민자치센터 별관에서, 생활목공예 교육프로그램 진행

교육부 2017.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제시 '공덕면 행복학습센터'가 지역주민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으로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공덕면 행복학습센터는 시내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면지역에 위치하여 그간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없었던 공덕면 주민의 근거리 학습장 구축을 위해 운영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별관에서 '생활목공예'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주2회로 운영된 공덕면 행복학습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생

필품을 직접 손으로 자르고 조립하여 만드는 생활목공 수업이 학습자에게 높은 참여율과 열띤 학구열로 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의 학습활동을 공덕면 주민을 위한 나눔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지난 2일 공덕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생활목공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에 참여한 공덕면민들과 함께 학습성과 나눔터를 운영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조종현 인제양성과장은 "앞으로도 면지역 주민들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유휴시설을 이용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을 마을단위까지 확대하고 학습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 가능한 평생교육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시 행복학습센터는 시민의 거주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김제시는 6개소(길보름·하동골·부량 벽골제·금구·교월·공덕)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 개소별 학습요구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13가지 행복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장애인 복지 헌신 공로 인정

김순옥 국제원 대표이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완주의 김순옥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순옥 대표이사가 장애인 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1971년, 장애인 재활시설 교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47년 동안장애인복지에 헌신해 왔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인 국제재활원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민원을 운영함으로써,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밖에 특수학교인 전북푸른학교(초중고)를 운영하고,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재활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 사회복지인들로 구성된 '완주 으뜸합창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현재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이 훈장은 복지인들 모두가 받아야 할 훈장을 대신해서 수상한 것이다"며 "사회복지현장에서 맘 흘리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기센터, 농가 방제 홍보·협업 방제 추진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과수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등) 과수지역(동부지역426ha) 방제를 위해 9월12일을 공

동방제의 날로 정하고 농가 방제 홍보와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배, 복숭아, 감 등 과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데 주로 가지에 알이 낳아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수액을 빨아 과실의 생육을 저해하여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해충으로 올해는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적은 강우로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경지를 대상으로 방제할 경우 인근 아산으로 도피했다가 수일 후 다시 농경지로 날아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산림지역까지 방제해야 한다.

돌발해충은 5월 하순부터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에 흡착해 수액을 빨아먹고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 병 피해를 주어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저하시킨다. 특히 성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사과, 포도, 매실, 복숭아, 블루베리 등 과수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방제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농가에 대한 포장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돌발해충의 방제를 위해 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농장과 주변 산림지까지 철저히 방제를 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공동방제를 통해 돌발해충의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won Market' (진안고원) featuring fresh produce like chili peppers, mushrooms, and other vegetables. Text includes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and '장~ 보러 오세요'.



행사문의 전주군청 전택산업과 063-430-2951